

광양 CCTV 통합관리센터 본격 가동

시, 469대 연계 방범·교통·어린이 안전 예방

경찰·교육청과 유기적 협력...긴급 상황 신속 대응

광양시가 그동안 기관별 목적별로 관리 운영하던 방범, 교통, 어린이 안전 및 초등학교 등에 설치된 각종 CCTV를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범죄나 불필요한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는 11일 “지난 10일 관내 469대를 연계·통합 관리하는 광양시 CCTV 통합관리센터의 구축이 완료돼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

CCTV 통합관리센터에는 모두 15억7400만원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하

반기 시험가동을 거쳐 경찰 2명, 전문 관제요원 19명이 24시간 교대근무체계를 구축해 운영될 예정이다.

도입된 통합관제시스템은 GIS기반으로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상황 발생 시 인근 CCTV 영상을 동시에 표출하는 투망감시 체계와 경로추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등학교와 공원주변에 설치된 비상벨 시스템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경고음과 현장 영상을 관제실에서 확보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야간에는 주정차 단속 등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CCTV를 방범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CCTV 통합관리센터는 광양시와 광양경찰서,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3개 기관의 CCTV를 통합해

상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유관 기관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CCTV를 방범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성용 광양시장장은 “CCTV 통합관리센터는 각종 범죄와 재난 예방은 물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황관제와 비상시스템을 갖춘 멀티 공간”이라며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도시 광양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발농사 준비 한창
지난 10일 오후 여주시 울촌면에서 한 농부가 농작물을 심을 땅을 갈며 올 한해 발농사를 준비하고 있다. <여주시 제공>

보성새마을금고-녹차골 향토시장 상인회 자매결연

온누리 상품권 판매 촉진...시장 활성화

보성새마을금고는 지난 10일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송기준 이사장과 정보현 상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녹차골보성향토시장 내 상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보성새마을금고는 향토시장 상인회와 상호협의를 통해 전국 전통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 운영하게 된다.

지난 7일 개장한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내 상인회는 원산지 및 가격표 시 이행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마을금고 이용 흥



보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송기준 이사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보성새마을금고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새마을금고는 관내 2개 금고와 함께 2년 연속 보성군 장학재단에 1000만원씩 기탁했다.

/보성=김은중기자 kyb@

‘야생화 천국’ 여수 하화도 뜬다

순천정원박람회 연계 철도여행상품 개발 추진

거문도·백도·초도 둘러보는 ‘삼도탐방’도 인기

여수의 작은 섬 하화도가 새로운 철도여행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11일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 섬과 순천정원박람회장을 연계한 철도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한 하화도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전답사는 야생화의 천국으로 잘 알려진 하화도를 순천만정원박람회장과 연계해 섬 철도

여행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삼산면 초도 사전답사를 마치고 ‘삼도탐방’ 여행상품을 개발할 바 있다.

삼도탐방 여행상품은 2박 3일 일정으로 초도에서 거문도·백도, 정원박람회를 둘러보는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삼도탐방’ 상품 외에도 ▲여수항 로맨스(1박2일/정원박람회~

향일암~금오도~오동도) ▲여수항 세레나데(1박2일/정원박람회~향일암~사도~오동도) ▲향일암 금오도 무박 2일(향일암~금오도~오동도) 등 다양한 여행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시는 수도권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20일 개막하는 순천만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여수 섬까지 둘러볼 수 있는 여행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섬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완주군과 통합, 약속사업 이행 법제화

전주시 ‘상생 조례’ 만든다

완주군과 통합을 추진 중인 전주시가 약속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이를 법제화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원활한 통합을 위해 통합 시정사 건립, 농업발전기금 확보, 택시사업구역통합, 농산물 도매시장 완주 이전 등 10개 상생발전 사업을 완주군에 제시했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총 5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완주군의회의 일부 반대단체는 전주시가 상생사업을 약속한 뒤 지키지 않을 것을 우려, 이행 방안미련을 촉

구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들 상생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조례를 주민투표가 시행되는 6월 이전에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통합 협상 당시 중앙정부가 주는 2300여원의 인센티브도 완주군의 농업·농촌에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 같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12일 전주대에서 한국자치행정학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열어 세부적인 내용을 점검한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올 벼 보급 종자

자가소독 철저 당부

정읍농기센터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11일 “올해 벼 보급종이 소독되지 않은 미소독 종자로 공급됨에 따라 농가에서 자가소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기술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농가 신청을 받아 신청된 등 정부 보급종 346t을 공급했다. 이는 6920ha를 파종할 수 있는 물량으로, 정읍지역 벼 생산 면적의 46%에 해당된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벼 종자로 전염되는 도열병, 카다리병, 깨씨무늬병, 벼잎선충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금물로 충실한 벼 종자를 고르고 물에 살균제와 살충제를 적절하게 혼합한 뒤 법씨를 망사포대에 담아 소독해야 한다. 또 온탕소독 겸용 발아기를 이용해 물 온도를 섭씨 30도 48시간 담가 소독해야 소독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나운파출소~은파사거리

전선 지중화·가로수 교체

군산시

군산시는 그동안 가로수 뿌리근로 인한 보도블럭이 돌출되고 상가 간판을 가려 민원이 제기된 대학로 일부 구간에 대해 한전 선로 지중화 사업과 함께 기존 메타세콰이어를 은행나무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은파방향은 기존의 메타세콰이어가 가로수를 존치시키고, 지중화 구간에 위치한 가로수 중 흉고 직경 30cm 이하 가로수는 할미모 등에 이식하고 30cm 이상 가로수는 벌채 매각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나운파출소에서 신설사거리(구 소방사앞) 구간은 지중화 사업에서는 제외된 구간이지만 기존 배롱나무 구간과 새로 조성되는 은행나무 가로수 구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메타세콰이어이 20여 본을 제거할 방침이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

농촌체험 기차 여행상품 선정 순창 ‘레일그린’

관광객 유치·특산물 판매 효과 ‘쑥쑥’

한국철도공사와 농촌진흥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농촌체험기차 여행상품 ‘레일 그린’ 체험프로그램에 순창군이 선정됐다.

순창군은 이번 공모에 ‘참 좋은 순창 나들이’ 라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 여행상품은 매주 2차례 80여명이 정기적으로 용산역을 출발, 남원역에 도착해 순창으로 와서 농촌체험활동을 하고 관광지도 두루 돌아보는 상품이다.

레일그린 투어는 장류제조 체험과 계절에 맞는 농·특산물 수확, 생산자 직거래 장터, 트레킹 등 다양한 농촌 체험을 하면서 강천산, 민속마을 등

주요 관광지도 둘러보고 지역문화유산 탐방 등을 고투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에는 임시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해 제철 농·특산품과 가공식품까지 판매할 계획이다.

또 이와 별개로 이달 내 영동군 새마을금고 고객투어와 녹색봉사단 캠퍼 등 700여명이 열차를 이용해 순창을 찾는다.

본격적인 레일그린과 장류체험, 수확여행단, 강천산 트레킹 임시열차를

운영할 5월부터는 최소 6000명 이상이 순창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을에는 장류축제열차,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다운 강천산 눈꽃열차, 수도권 도시민을 위한 김장열차, MTB열차, 강천산 트레킹 열차 등 열차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관광마케팅과 농산물의 획기적인 판매 전략 등 차별화된 관광코스를 개발해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최선으로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 특산물 서울 직거래장터

남원시는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코레일 용산역 광장, 송파구 오금골 축제, 청계천 광장, 삼성 래미안 아파트 등 서울지역 4곳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남원참미, 한과, 추어탕 등 30여종의 지역특산물을 판매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5일간 추진되는 제83회 춘향제와 제19회 바래봉 철쭉제 등 지역축제와 귀농귀촌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단신

정읍 옛 모습 사진 전시회 내달까지 개최

정읍시가 11일부터 다음달까지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정읍지역의 옛 모습과 정취를 담은 ‘정읍 옛 모습 사진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때의 생활모습’, ‘학교생활’, ‘새마을운동’, ‘관촌상제’, ‘기관 및 청사’ 등 모두 5가지 주제에 걸쳐 72점의 사진작품이 선을 보인다.

시는 사진마다 설명자료를 부착해 관람자의 이해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사진관람 중 곳곳에서 과거의 아련한 추억을 회상하는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치와 품격 있는 전시회라는 평가를 받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인월시장 매주 토요일 ‘주말장터’ 연다

남원시와 인월시장 상인회, 주말장터 추진기획단은 지리산 둘레길을 찾은 관광객들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주말장터를 본격 운영한다.

장터 내 부스에는 막걸리와 부침개 등 다양한 먹거리와 지리산에서 생산되는산나물, 약초, 흑미차, 과일 등의

농·특산물이 전시 판매된다. 또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만드는 외국 음식을 맛 볼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산나물과 야채, 약초를 파는 할머니 장터도 운영된다. 장날이 겹치는 토요일에는 대중가수 공연, 각설이, 밴드 동아리 등을 초청하는 문화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주 ‘한지 소망등 만들기’ 무료체험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는 13일과 14일 전주한옥마을 내 전주공예품전시관 윗터에서 관광객의 축제 참여와 홍보를 위해 축제기간 행사장에 걸릴 ‘한지 소망등 만들기’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한지 소망등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직접 한지등을 만들고 소원을 적도록 했으며, 만들어진 등

은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 완주군대송한지마을에 걸릴 예정이다.

제17회 전주한지문화축제는 5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완주군 대송한지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 논밭에 버려진 영농 폐비닐 수거작업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논밭에 방치된 영농 폐비닐 대청소를 실시했다.

군산시생활개선회연합회 600여 명은 읍면동 전역에 버려져 방치된 토양살포용 비료포대과 축사 주변 폐비닐 등 영농 폐비닐을 공동 수거하는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1t 트럭 50대 분량의 폐비닐을 수거했다.

집중 수거된 폐비닐은 지난해 발파물을 수확하고 방치된 폐비닐과 토양살포용 비료포대 등 영농폐비닐 등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임시 집하한 후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에 전량 인계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